

# “시민이 행복한 익산 만들기 위해 최선”

### 정현을 시장, 주민과의 대화 마무리... 5천여명 참여, 450건 건의사항 접수

정현을 익산시장이 새해를 맞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시작한 주민과의 대화가 17일 망성면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10일만에 걸쳐 하루 3개소씩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총 5,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시정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 시장은 2018년 주요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 허브,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으로 정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2017년 주요성과로 ▲예산 1조 원시대 개막(부채 잔액 1,001억원, 1년간 591억원 상환, 2018년 국가예산 6,721억원 역대 최대 확보, 보통교부세 3,588억원 확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구도심 새뜰마을 사업)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 조성(컨벤션 호텔, 지식산업센터 익산 센트럴파크 건립) ▲민간부자를 통한 공원조성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북부권 미래농정국 신설) ▲시민안전보험 가입(전 익산시민 혜택)을 꼽았으며, 2018년 5대 역점사업으로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2018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미래 교육도시 조성(글로벌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학교무상급식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하며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 활기찬 경제, 함께 살고 싶은 도시 모두가 따뜻한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 교육 복지, 지역개발 등 총 450여 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건의된 민원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시장이 직접 현안 사업들을 설명해 주고 민원사항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고 믿음이 간다”고 말하면서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화하는 행정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해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정왕원 기자

## 익산시,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24일~2월 2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사업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목표로 2018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익산시는 2018년 전국체전 대비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동시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 접수는 오는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시는 접수기간 동안 참여희망 신청을 한 대상자 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6명, 공공근로사업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대상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 사업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재선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의료, 주거, 교육은 가능),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 숲 가꾸기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또는 공공근로사업 중 한 가지 사업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859-5237),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왕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신산업인력 수요와 대학역량을 기반으로 농생명 및 스마트기계·소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일환인 컴퓨터S/W 대장간4.0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 아이디어 바탕 신개념 실습 공간 구축

### 원광대, 프리임사업단 '컴퓨터S/W 대장간4.0' 개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신산업인력 수요와 대학역량을 기반으로 농생명 및 스마트기계·소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일환인 컴퓨터S/W 대장간4.0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17일 원광대에 따르면 프리임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15일 열린 개소식은 김도중 총장과 대학운영위원 행정관리지원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를 비롯해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학대학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대장간4.0은 학생들이 직접 준비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공간으로 각종 장비 조작 능력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습득된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생산하는 제작 실험실이다. 특히 대장간4.0(컴퓨터S/W)은 대장간 시리즈 중 첫선을 보인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컴퓨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PC부품 조립, 소프트웨어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는 창업지원센터와 연

계해 학생 참여를 지원하고, 조립PC 등 학생들의 실습결과물을 지역 불우 이웃이나 해외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등 교육을 통한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도덕대학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SW 코딩교육이 교과과목으로 편성돼 의무화됐다”며, “학생들이 이런 사회 적응을 위해 필수로 갖춰야 할 능력은 정보 수집을 위한 컴퓨터 조작능력과 맞춤형 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능력, software 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장간4.0을 적극 활용해 대학생들에게 가장 앞서나갈 버린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 전북서부보훈지청,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

전북서부보훈지청이 지난 16일 보국수훈자로 신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대통령명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수했다. 17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항구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로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는 이날 기관장이 직접 보훈 수혜사항을 안내하고 나라사랑 배지 달아주기, 기념액자 증정 등 격조있는 증서 전수식을 개최했다.

증서를 수여받은 손재택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취업 등 여러 가지 보훈혜택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자세한 설명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전북서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모두가 나라를 위해 희생과 공헌했던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국민들 모두의 가슴 속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나라사랑정신이 녹아 흐르도록 감동을 주는 품격 높은 국가유공자증서 전수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왕원 기자

## 군산시, 친환경 명상숲 3개교 조성

군산시가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관내 학교 3개교(대성중, 산북중, 중앙여고)에 명상숲을 조성한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자연학습 공간 및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및 주변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명상숲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이다.

각 학교의 학교 구성원 학부모, 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상호협력의 이해를 바탕으로 명상숲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추후 사후관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고려하여 명상숲 조성 업무협약 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23개 학교에 대하여 명상숲을 조성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문체 산림복지과장은 “시에서는 학교 환경 개선하는 녹지공간의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명상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문동신 시장 주재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17일 문동신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위기극복 노력과 새로운 도약의 길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지난해 시정의 총괄평가보고와 올해의 3대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국소별 보고 그리고 시정발전 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세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기극복 노력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총괄평가보고에서는 지난 한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고난을 잘 헤쳐 나가며 의미 있는 큰 성과들이 이루어 낸 한 해로 평가하였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및 육성분야 발굴 등 군산발전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대 핵심과제 59건 주요과제 171건 등 총 590건의 세부사업이 국소별로 발표되었으며, 금년도 시정역량 결집과 부서간 협업 등 빈틈없는 업무추진을 다짐했다.

문 시장은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시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500만 관광객 시대 대비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였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길 개척에 시정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표된 590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여 정책추진동력을 확보해나간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꾸는 도시 군산

군산시 GUNSAN CITY